

# 메리 이야기

우리는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여름인 다섯 살 때 아이가 난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만해도 BC 주에는 신생아청력검사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히도 딸이 신생아였을 때 난청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어요. 딸의 난청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난청에 관한 정보나 자원이 별로 없는 작은 마을에 살아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전 직장 동료가 난청인 아이를 키운 적이 있으므로 연락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삶이 어떠했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동료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앞으로 나아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워크숍에도 참석하여 시각 장애와 난청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각자 이야기가 다르고 의사소통방법은 다양했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참 기뻐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정보가 부족하여 큰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에서 운영하는 방문프로그램이 있어서 외딴 지역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난청아를 둔 가족들 그룹이 운영하는 지역 청력협회도 있었습니다. 이 협회는 난청아를 둔 다른 가족들과 만날 기회를 주고 워크숍을 주최하여 유익한 정보를 주었어요. 우리는 이 협회에서 제공한 기회와 경험, 그리고 만남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은 처음에는 양쪽 귀에 보청기를 끼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는 FM 시스템을 사용해요. 청력자원교사한테 매주 지원도 받았습시다. 또한 학교에 가서 개별교육계획을 세워 딸의 요구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제 십대에 막 접어 들려고 하는데, 스포츠와 패션, 그리고 독서와 요리 등 관심 분야가 다양합니다. 학교 성적도 좋고 동급생들에게도 인기가 좋아요. 성격도 훌륭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농담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정에서 기복도 겪었지만 학습과 성장을 통해 그러한 오르내림을 통과해 냈어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서로 의지하거나 지원네트워크의 도움도 받았어요. 우리는 딸이 아주 대견스럽고, 또한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여 기쁩니다.

